

보도시점 2026. 9. 3.(목) 14:20 (2026. 9. 4.(금) 조간)

##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노동부 장관, 10대 그룹과 정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과 함께해야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어”
- 주요 그룹, 신규채용 확대와 직무경험 기회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공유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류진 회장)를 방문하여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0대 그룹 CHO(최고인사 책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0대 그룹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K-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늘리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기업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프로젝트, 창업·창직,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요 그룹 CHO들은 신규채용 확대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등 직무경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채용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며, “경영계와 협력하고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진 회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2인 3각 달리기’처럼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경영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26년 2.6조에서 (정부안)'27년 3.3조로 약 7천억 증액하는 등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K-뉴딜아카데미(4,895억), 청년첫취업지원제도(3,793억), 청년플레이그라운드(201억) 등

## 붙임 1. 간담회 개요

### 2. 장관 인사말씀

|       |                    |     |     |     |                |
|-------|--------------------|-----|-----|-----|----------------|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br>청년고용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최윤미 | (044-202-7440) |
|       |                    | 담당자 | 서기관 | 박세은 | (044-202-7423) |
|       |                    |     | 사무관 | 천민정 | (044-202-7417) |

**1 개 요**

- (일시) '26년 9월 3일(목) 14:00 ~ 15:00
- (장소) FKI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참석) 총 16명 내외
  - (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 (한경협) 류진 회장, 김창범 부회장
  - (기업) 10대 그룹\* CHO(최고인사책임자)
  - \*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신세계
- (주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의견 청취

**2 세부 계획(안)**

※ 인사말씀까지 공개(이후 비공개 전환)

| 일 정         |     | 주요 내용             | 비 고     |
|-------------|-----|-------------------|---------|
| 14:00~14:03 | '3  | · 개회 및 기념촬영       | 참석자 전원  |
| 14:03~14:06 | '3  | · 개회사             | 한경협 회장  |
| 14:06~14:09 | '3  | · 인사말씀            | 장관      |
| 14:09~14:14 | '5  |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방향 | 청년고용정책관 |
| 14:14~14:58 | '44 | · 기업 의견 청취 등 간담   | 참석자 전원  |
| 14:58~15:00 | '2  | · 마무리 말씀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에서  
류진 회장님과 기업 관계자분들,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10대 그룹 CHO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0대 그룹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에너지 등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간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취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또한, 청년 개인의 삶의 기반인 동시에,  
인적자본,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이어  
최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청년의 의미있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등 민간 일자리,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으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은 첫 경력을 형성하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도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여기 제신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4월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라 시작된  
‘K-뉴딜 아카데미’는 10대 그룹이 함께해 주셨고,  
현재 청년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로  
기업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의 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창업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운영에도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이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